

# 클라이스트의 희곡 『헤르만의 전쟁』 연구

李 甲 圭\*

## I

『헤르만의 전쟁』(Die Hermannsschlacht. Ein Drama)<sup>1)</sup>은 게르만 민족의 영웅 아르미니우스(Arminius)<sup>2)</sup>가 그의 동족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흔히 사극(史劇)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에 충실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한 프로이센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일민족이 결속할 것을 호소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클라이스트는 단순한 역사극을 쓰려한 것이 아니라, 프로이센에 대한 나폴레옹의 정치적 야망을 분쇄하고 그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켜 독일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

\* 서울대 독문과 교수

- 1) 이 희곡의 표제에 작가는 조국애의 일단면 잘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모토(Motto)를 달았다. "Wehe, mein Vaterland dir! Die Leier, zum Ruhm dir, zu schlagen, / Ist, getreu dir im Schoß, mir, deinem Dichter, verwehrt." 이것은 피테(J. W. v. Goethe)의 다음과 같은 민족 통일관과 대조를 이룬다. "Deutschland ist nichts, aber jeder einzelne Deutsche ist viel... / Zur Nation zu bilden, ihr hofft es Deutsche vergebens. / Bildet, ihr könnt es, dafür freier zu Menschen euch aus!" (Vgl. Philipp Witkop: Heinlich v. Kleist, Leipzig 1921, S. 196.)
- 2) 헤르만은 원래 헤투스커-토이트부르크(Cherusker-Teutoburg)의 숲과 엘베강 사이의 베저(Weser)지방에 거주한 게르만족의 영주 아르미니우스를 지칭한다. 그는 서기 9년에 바루스(Varus)가 지휘하는 로마병단을 토이트부르크의 숲에서 격퇴하여 게르마니스(Germanis)의 독립의 기초를 세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8세기 독일은 명목상으로 신성로마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이미 통일국가로서 아무런 실권도 없었다. 제국의 중앙기구로서 제국의회(Reichstag)나 제국 고등법원(Kammergericht), 그리고 제국군대(Reichsarmee) 등도 모두 권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독일국토는 왕(König), 공(Erzherzog), 후(Herzog), 백(Graf) 등의 제후령(諸侯領)과 대사제(Erbischof), 사제(Bischof) 등 수많은 교회령, 그리고 50개의 제국도시(Reichsstadt), 1500개에 달하는 제국기사(Reichsritter)들의 영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따라서 이미 오래 전에 통일을 이룬 영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 민족에게는 국가(Nation)보다는 민족(Volk)이라는 개념이 우선했다. 향토에 대한 애착심이나 왕가에 대한 충성심이 점차 국가의식으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각 왕조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쉴러(F. Schiller)는 신성 로마제국이 정치적으로 결정적인 붕괴에 직면했을 때(1806년)에도 '독일제국과 독일국민은 별개의 것'이라고 하였으며 괴테는 1806-1813년을 자기 생애의 최고의 해라고 말하였다.<sup>3)</sup>

국토의 분열은 18세기 독일을 특징짓는 지도상의 현상만이 아니었다. 왕이나 제후들은 압정을 일삼는 전형적인 전제군주로서 각기 조세권을 갖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부역의 의무를 부가하였다. 따라서 백성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유일한 생산수단인 농지를 소유하지 못했고, 농노와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정치적 후진성은 국난에 직면한 국민에게 동질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고 조국애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군소 영주들, 특히 라인동맹(Rheinbund)의 제후들은 제각기 이해득실에 따라 나폴레옹의 위협과 유화정책에 굴복하여 조국을 팔았다. 프로이센 역시 군사적으로 우세한 나폴레옹의 위협에 굴복하여 그들의 침공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현실에 안주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나폴레옹은 아우스테리츠(Austerlitz)로 진군해 왔고 허약한 프로이센은 1805년 12월 15일, 쉐부른(Schönbrunn)의 굴욕적인 조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클라이스트는 쾨니히스베르크(Königsberg)에서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창작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러나 쉐부른조약이 체결된 직후 1805년

3) Vgl. Johannes Haller: Die Epochen der deutschen Geschichte, List Bücher 65, S. 197.

12월 말에 그는 친구 릴리엔슈테른(Rühle von Lilienstern)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으로 프로이센 정부의 대불정책을 맹렬히 비난하였고 정부의 허약한 태도에 절망했다. 『헤르만의 전쟁』을 집필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비록 길지만 이 편지의 일부를 인용한다.

[...] 현재의 정세에 비추어 보건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멋있게 몰락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구나. 겨울을 넘기며 태평스럽게 요새를 포위하는<sup>4)</sup> 작전을 세운다는 것은 무의미하네. 만약 우리가 앞으로 또 다시 일개월 동안 무기를 든 채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로 철군하는 것을 방관한다면 프랑스군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번 겨울에 반드시 공격할 것이네. 터무니없이 강력한 세력에 이와 같은 고식적인 수단으로 대항한다는 것이 결국 어려운 일이겠지. 왕은 프랑스군이 프랑켄(Franken)을 침공했을 때 왜 즉시 의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단 말인가. 굴욕을 감수하고 왕에 의한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의원 자신들의 명예심에 맡겼더라면 그들의 마음에 민족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들의 마음에 그러한 감정을 각성시켰더라면 이 전쟁이 범상한 전쟁이 아님을 설명할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네. 국가의 존망이 이 일전에 달려있네. 당장에라도 병력을 30만으로 증강할 수 없다면 왕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한 가지, 깨끗한 전사밖에 없을 것이야. 자네는 아리한 병력증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만약 왕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금은보화를 화폐로 개조하고 시종들과의 승마도 폐지하며 그의 가족도 그의 술선수범을 따른다면, 또 그런 뒤에 왕이 국민이 나아갈 길을 국민에게 묻는다면.... 지금 은쟁반에 담긴 산해 진미가 입에 당길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다네. 그러나 올뮈츠(Olmütz)<sup>5)</sup>로 피신한 황제는 산해진미도 결코 입에 달지 않을 것이네.

- 
- 4) 프랑스군에 점령된 함멜른(Hammeln) 요새를 탈환하기 위한 프로이센 군의 미온적인 작전을 말함.
  - 5) 오스트리아 황제는 1805년 11월 6일 비인에서 올뮈츠로 피신 했고 11월 13일 비인은 프랑스군이 점령하였다.

친애하는 튀일레, 모든 것이 끝났어. 시대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질서의 정착을 볼 수 없고 단지 옛 질서의 붕괴를 체험할 따름일거야. 유럽의 모든 문명지역은 하나의 국가연합이 되고 말겠지. 모든 왕좌는 프랑스에 의존하는 왕들의 차지가 되겠지. 요행으로 왕관을 쓰게 되는 사기꾼(glückgekrönter Abendtheurer)은 그 요행이 계속되는 한 오스트리아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야. 가까운 장래 우리들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독일국 헌법이 개정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읽게 될 것이고 다음으로 '어느(남부) 독일의 유력한 영주가 연방의 맹주가 될 것이다'라는 소문에 접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1년 후에는 바이에른의 선제후가 독일의 국왕이 될 것이다.<sup>6)</sup> 어찌하여 이 세기의 악령의 머리에 총탄을 박아 넣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 따위 망명자가 독일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sup>7)</sup>

괴테와 셸러를 위시한 많은 문인들에게 독일제국의 패망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이 만들어낸 정신적 업적 속에 독일인의 품위가 얼마나 표시되어 있는지에 관심을 두었을 뿐이었다. 이 품위라는 것은 도덕적인 위대함이고 이 위대함은 정치적 운명과 상관없이 국민의 문화성격 속에 내재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은 문화국민을 국가국민(Staatsnation)보다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데 유독 클라이스트가 이러한 정치풍토를 개탄하고 독일인의 일체감(Identität)에 호소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려고 애쓴 것은 그의 가계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프로이센의 군인귀족 가문 출신으로 그의 선대에 이미 18명이나 되는 장군이 나왔고, 그 역시 스스로 원한 것은 아니지만 15세에 사관후보생으로 포츠담 근위연대에 입대하여 육군 중위로 퇴역했다. 이러한 전력에 비추어 보면, 곤돌프(Friedrich Gundolf)가 지적한 바와 같이<sup>8)</sup> 클라이스트는 반동적인 정치가 기질을 가진 작가이며 프로이센 주도하의 독

6) 바이에른의 선제후는 나폴레옹과 동맹을 맺었다.

7) H. v. Kleists Werke, hrsg. v. Erich Schmidt, Vol. II, Leipzig, S. 141 ff.

8) Vgl. F. Gundolf: Heinlich von Kleist, Berlin 1922, S. 7.

일 통일을 이상으로 삼았던 작가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희곡 『헤르만의 전쟁』은 작가의, 어떤 의미로는 치졸하지만, 확고한 정치적 의도를 담은 선동극(Hetzstück)이자 경향극(Tendenzstück)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작품의 구성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작품들은 로오엔슈타인(Casper von Lohenstein)의 『고결한 장군 아르미니우스 또는 독일의 자유수호자 헤르만 및 그의 영부인 투스넬다』(Großmütiger Feldherr Arminius oder als ein tapferer Beschirmer der deutschen Freiheit, nebst seiner durchhauchtigen Thusnelda usw. 1689)와 슈레겔(J. E. Schlegel)의 『헤르만』 및 클롭슈토크(F. G. Klopstock)의 3부작 『헤르만의 전쟁』(1769), 『헤르만과 영주들』(1784), 그리고 『헤르만의 죽음』(1787) 등이다.<sup>9)</sup>

## II

모두 5막 53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등장인물이 30명이 넘는 대작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케트헨 폰 하일브론』(Kätchen von Heilbronn)에서와 마찬가지로 셰익스피어가 강조했던 장소와 시간의 통일을 무시했다. 클라이스트는 『로베르트 귀스카르트』(Robert Guiskard)와 공연에 실패한 『깨어진 항아리』(Zerbrochener Krug) 그리고 괴테의 빈축을 샀던 『펜테질리아』(Penthesilea)에서 고집스럽게 고수했던 단막극에 대한 미련도 버렸다. 그는 당시 독일의 정치 군사적 상황을 대부분 그대로 이 드라마에 옮겨 놓았다. 극중인물 헤르만은 프로이센을, 마르보트(Marbod)는 오스트리아를, 그리고 아타린(Attarin)은 바이에른을 대표한다. 중립을 고수했던 제후들과 로마와 동맹을 맺은 제후들은 라인동맹(Rheinbund) 제후들을 대표한다.

먼저 이 드라마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헤르만에게 부과된 사명의 확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준비단계, 그리고 사명의 실현이 바로 그것이다.

---

9) Vgl. Philipp Witkop: aa.O., S. 202 f.

제1막과 2막이 바로 이 첫 부분에 속한다. 헤르만은 자신에 부과된 사명의 중대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적은 전 세계를 자신들의 판도에 넣을 야망을 착실하게 실현하고 있는 로마인이다. 그들은 뛰어난 전술과 교활함, 그리고 간악한 술수로 이미 게르만의 제후 가운데 한 사람인 투이스코마르(Thuiskomar)를 농락하였고 이제는 헤르만을 향해 마수를 뻗친다. 로마군에 대항하는 게르만인의 상황은 그들과 정반대다. 그들은 뛰어난 전술을 지니고 있지 않다. 우직하고 단순한 그들의 민족성은 권모술수와는 인연이 없다. 게다가 부족들은 수없이 분립해 있고 공동의 민족의식이나 단결심도 결여되어 있다. 어떤 굴레로도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없다. 몇몇 영주들은 이미 로마군에 굴복했거나 스스로 로마군에 화의를 청하고 있다. 겨우 독립의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제후들도 일신의 안전과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제후들과 협력하여 로마군에 대항하는 공동전설을 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게르만 민족은 이제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운명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난국에 처한 게르만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헤르만 외에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인 헤르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놓여 있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 로마의 맹장 바루스(Quintilus Varus)는 이미 헤르만의 진영을 유린하기 위하여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으며 헤르만과 동맹을 맺었으나 전 게르만 부족을 손아귀에 넣을 야심을 불태우고 있는 주에벤(Sueven)의 영주 마르보트가 호시탐탐 헤르만의 배후를 노리고 있다. 로마의 전략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영웅을 싸우게 하여 스스로 붕괴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뒤로 적의 위협을 받는 헤르만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나폴레옹이 1805년 12월에 아우스테르릿츠(Austerlitz)에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괴멸시키고 1806년에 예나(Jena)와 아우에르슈테트(Auerstädt)에서 프로이센군을 격파하여 독일 국내를 혼돈에 빠져들게 한 것과 유사하다.

헤르만은 결국 게르만족의 제후들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맹주가 되기로 하며 로마군에 대한 최후의 결전을 결심한다. 그러나 헤르만은 조건을 제시한다.

이미 여러분께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의 처자식을 베저강

우안(右岸)으로 옮기고,  
 당신들이 소유하는 금과 은으로 된  
 집기를 화폐로 주조하시오.  
 진주와 보석들을 팔거나 저당잡히시오.  
 여러분의 전답을 황폐화하게 하고  
 가축을 도살하고 마을을 불태우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맹주가 되겠소.<sup>10)</sup>

제후들은 헤르만이 제시한 조건에 경악한다. 그들이 쫓겨난 이유는 전답과 가축 그리고 살고 있는 마을을 지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헤르만이 내세운 조건에 반대한다. 그러나 헤르만은 이 싸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생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헤르만은 이 전쟁의 목적이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의 자유와 독립임을 역설한다.

나는 여러분이 자유를 위해서 쫓겨나는 것이라 생각했소.<sup>11)</sup>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제후들은 게르만족의 명예와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헤르만은 결국 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고립된다. 앞서 인용한 클라이스트의 편지에서처럼 나폴레옹군이 라인강을 건너 침공했을 때, 라인동맹국의 영주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독일민족의 자유와 명예는 안중에도 없었다.

헤르만은 또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Augustus)는 마르보트의 야망을 분쇄하도록 헤르만에게 원군을 보내겠다고 수차에 걸쳐 제의한다. 물론 헤르만은 이것이 로마의 책략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로마군과의 결전을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부족간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헤르만은 원군을 보내겠다는 로마의 국

10) H. v. Kleist: Sämt. Werke u. Briefe I, Hermannsschlacht, S. 546 (374- 382).

11) *ibid.*, S. 547 (388).

사(Legat) 벤티디우스(Ventidius)의 반복되는 제의에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게르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민족, 그것도 불구대천의 적 로마의 힘을 빌린다는 것에 헤르만은 갈등을 느끼는 것이다.

두번째 부분은 제2막의 후반에서 제5막의 전반까지다. 헤르만은 여기서 게르만의 싸움의 목표가 결코 외적인 측면, 즉 개화를 획득하거나 국도를 넓히는 데 있지 않고 오직 게르만인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는, 내적인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한다.

헤르만은 로마의 제의를 표면상으로는 환영하지만 이면으로는 그의 숙적 마르보트와 화의를 이루기 위하여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다. 그는 로마의 국사 벤티디우스가 자신의 처 투스넬다(Thusnelda)에게 호의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음을 알면서도 목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추긴다. 투스넬다 역시 젊은 국사에게 성실한 호의를 보이며 이 문명국 청년을 동경의 눈으로 바라본다. 토이트부르크(Teutoburg) 숲에 설치된 헤르만의 막사에 있는 투스넬다의 방에 벤티디우스는 자주 출입하며 그녀가 연주하는 라우테(Laute)에 도취된다. 벤티디우스는 그녀의 아름다운 금발 한 가닥을 뽑아 입술에 대며 애무하자 그녀는 몹시 화를 낸다. 그러나 벤티디우스는 “이 한 가닥의 머리칼은 아프리카 황금보다, 페르시아 비단보다, 코린트 진주보다 그리고 로마 병기가 전 세계에서 획득한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다”<sup>12)</sup>고 말하며 그 머리칼을 소중히 간직한다. 투스넬다는 일순간 감미로운 도취감에 젖어 든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 헤르만의 목시적인 부추김과 로마인에 대한 그의 증오를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젊은 국사의 진심과 사랑의 고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깨닫고 자책감에 괴로워한다. 그녀는 헤르만에게 국사의 접근을 막아 줄 것을 간청하지만 목살당한다. 오히려 헤르만은 “그 머리칼을 어디에 쓸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의 입맞춤을 진실이라고 믿지는 않겠지.”<sup>13)</sup>라고 경고한다.

제2막의 마지막 장(10장)에서 헤르만은 비로소 자신의 원대한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한다. 헤르만은 매우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다. 로마군에 대한 그의 작전은 결코 공명정대한 것이 아니다. 그는 원래 총명하고 용감한

12) *ibid.*, S. 554 (600-604).

13) *ibid.*, S. 557 (691-694).

사람이지만 동시에 권모술수에 능하고 교활하다. 그는 사랑하는 처자식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태연히 희생할 수 있는 가혹한 현실주의 정치가 (Realpolitiker)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항상 게르만인의 자유와 독립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미화될 수 있다. 그의 처 투스넬다는 "로마인에 대한 증오가 당신을 눈물흘리게 하고 있어요"<sup>14)</sup>라고 개탄할 정도다.

첫 단계로 헤르만은 게르만인의 결속을 위해서 유일한 실력자 마르보트와 손을 잡는다. 헤르만은 마르보트에게 이미 로마가 군사원조를 제의했음을 알고 있다. 헤르만은 마르보트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스로 그에게 신하로서 예의를 갖추기로 하고 자신의 약속에 거짓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두 아들을 인질로 제공하기로 결심한다. 그의 조국에 대한 사랑은 이러한 희생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했다.

그는 밀서와 한 자루의 비수를 주어 두 아들을 마르보트에게 극비리에 인질로 보낸다. 그 밀서에는 로마의 대장군 바리우스가 지휘하는 원군이 배저강을 건너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고 토이토부르크의 숲에서 협공하여 적을 섬멸한다는 자세한 작전계획과 만약 이 밀서의 내용을 믿지 못한다면 인질을 휴대한 비수로 죽여도 좋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헤르만은 그가 자신의 충심을 믿고 협력하여 구국의 결전장에 달려올 것을 확신한다. 헤르만은 이제 로마군을 섬멸할 준비의 일단계를 완료한 것이다.

헤르만은 총사령관 바루스가 지휘하는 원정군의 토이토부르크 진주를 환영하며 그를 정중히 영접한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아우그스투스에게 신하로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

진주군으로서 로마병사들의 게르만인에 대한 경멸과 모욕은 극에 달한다. 그들이 볼 때 미개한 게르만인은 들짐승에 불과하다. 바루스는 자기 병사들이 게르만인에 저지른 방화, 살인, 약탈 등의 만행을 사과하며 범인을 체포하는 즉시 극형에 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헤르만은 오히려 진군할 때 일어난 일이니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다. 왜냐하면 로마인의 선정은 게르만인에게는 독약이 되며 그들의 덕행이나 정의로움은 게르만인으로 하여금 그들을 추종하게 하기 때문이다. 헤르만은 로마병사에 의한

14) *ibid.*, S. 557 (685).

더 많은 악행이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처 투스넬다에 대한 헤르만의 태도 역시 석연치 않다. 그는 최근에 있었던 로마병사에 의한 게르만족 여인의 피습에 대해서 언급하며 게르만 여인의 금발이 로마여인의 장신구로 매우 인기가 있으므로 머리칼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한다. 투스넬다는 로마의 국사가 자신의 금발을 찬양하던 말을 상기하며 남편의 말을 만신반의한다. 헤르만은 "로마인들이 게르만 여인의 금발을 송두리째 잘라갔을 뿐 아니라 상아같이 흰 이빨도 장신구로 쓰기 위해서 뽑았다"<sup>15)</sup>고 말한다. 투스넬다는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남편의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한편 헤르만은 로마군에 대한 중요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그들의 만행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전 게르만 부족에게 알린다. 그러나 로마군은 총사령관 바루스의 엄명에 따라 군율이 회복되고 국내의 질서가 잡히게 된다. 따라서 헤르만은 초조해 한다. (제3막, 4 5 6장)

마르보트의 진영에서는 헤르만의 친서와 인질문제로 아타린(Attarin)과 격론을 벌인다. 그러나 마르보트는 게르만족의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 헤르만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린다. 그러나 아타린은 인질이 헤르만의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없음을 들어 반대한다.

헤르만은 로마병사들에 대한 부족들의 적개심을 고취시킬 더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고심하던 차에 천우신조라 할만한 사건이 발생한다. 병기대장장이(Waffenschmied) 토이트홀트(Teuthold)의 딸 할리(Hally)가 수명의 로마병사의 습격을 받아 실신한 채 발견된다. 토이트홀트는 두 조카를 데리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딸의 참혹한 몰골에 격분하여 제손으로 딸의 가슴에 칼을 꽂는다. 급보에 접한 헤르만은 이 사건을 민족봉기의 다시 없는 기회로 삼는다.

내 말을 잠자코 들어라.  
 네 능욕당한 딸을 조카들과 함께  
 집으로 옮겨라.  
 우리 게르만족은 열다섯 개의 부족이니

15) *ibid.*, S. 569 (1027-1029).

이 시체를 열다섯 개로 토막내어  
 열다섯 부족에게 돌려라.  
 내가 열다섯 필의 말을 주겠노라.  
 할리의 살점은 전 독일인의 마음에,  
 아니 목석에 이르기까지,  
 복수의 불길을 당길 것이리라.  
 숲을 가로 지르는 노한 바람도  
 봉기하라고 외칠 것이며  
 암벽에 부딪치는 파도도  
 자유를 절규하리라.<sup>16)</sup>

헤르만은 이 사건을 통해 마침내 게르만 부족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한다. (제4막, 4·5장) 출전에 앞서 헤르만은 작별을 고하기 위하여 투스넬다를 찾는다. 그녀는 남편에게 토이트부르크 숲에 헤르만의 군사들이 집결하여 로마의 수비대장을 처형하고 로마의 모든 병사들을 몰살할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이냐고 묻는다. 헤르만은 시인한다. 선인도 악인도 가리지 않느냐고 재차 묻는 말에 헤르만은 그 선인이라는 자가 가장 악한 자라고 말하며 로마인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일 것이며 그들이 이 땅에 머물고 있는 한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과된 사명이며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자신의 미덕이라고 대답한다. 투스넬다는 국사 벤티디우스의 목숨만은 살려줄 수 없느냐고 물으며 그를 국외로 도피하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헤르만은 그녀에게 한 가닥의 머리칼을 꺼내 보인다. 그것은 벤티디우스가 전날 그녀의 머리에서 뽑은 것이었다. 어리둥절해하는 투스넬다에게 그는 한 통의 편지를 건네주며 벤티디우스가 로마의 황후에게 보내는 밀서라고 말한다. 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후 폐하. 바루스는 지금 병단을 이끌고 헤루스케르(헤르만의 영지)에서 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헤루스케르는 로마의 시장에서 황후께서 구입하시는 비단보다 더 부드러운, 황금같이 찬란한 금발의

16) *ibid.*, S. 590 f. (1608-1620).

산지입니다. 지금 저는 황후를 마지막 배알했을 때 황후의 아름다운 입에서 농담조로 흘린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황후를 위하여 선택한 금발의 견본을 보냅니다.

헤르만이 쓰러지면 즉시 가위로 잘라 봉정하겠습니다 ...  
이것은 이 나라 영부인의 금발입니다.<sup>17)</sup>

투스넬다의 벤티디우스에게 품고 있었던 복잡한 호의는 불타는 증오로 바뀌며 그녀는 그에 대한 복수를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행하기로 결심한다. 금발 머리 한 가닥을 이용한 복수 모티브는 클라이스트의 극작가적 재능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인다. 제5막은 2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반부는 헤르만에게 부과된 사명을 실현하는 이 극의 세번째 부분에 해당한다. 헤르만과 마르보트의 군사들은 이미 정해진 작전에 따라 로마군을 협공한다. 토이트부르크 숲에서 전개되는 이 전투 장면은 물론 무대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두 사람의 전령의 입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는 클라이스트 특유의 사건 처리방식을 따르고 있다. 5막의 중심부에는 벤티디우스에 대한 투스넬다의 복수장면이 놓여있다. (15장-19장) 이 장면은 『펜테지레아』(Penthesilea)의 아킬레스(Achilles) 살해장면을 방불케할 만큼 잔인하다. 『펜테지레아』의 경우는 맹수보다 사나운 사냥개를 이용했지만 여기에서는 굶주린 암곰(Bärin)을 동원한다. 장소는 헤르만의 막사 뒤편의 넓은 뜰이다. 쇠창살이 있는 견고한 우리 속에 반나절 동안이나 굶긴 암곰이 갇혀있다. 투스넬다는 이 뜰에서 로마의 청년국사 벤티디우스와 밀회를 약속한다. 그녀는 한밤중 자신을 찾아온 벤티디우스를 유인하여 우리 속에 가둔다. 굶주린 맹주를 이용한 잔인한 복수는 『펜테지레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난의 표적이 되었지만 작가 클라이스트의 폭력의 미학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벤티디우스에 대한 투스넬다의 잔인한 복수는 헤르만이 보여주는 국가 의식이나 조국애와는 상관이 없다. 비록 남편의 목인 또는 사주에 의한 것이기는 했지만 투스넬다는 마음 속으로 이 문명국의 청년을 좋아했고, 그의 신변이 위협에 처했을 때 그가 국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간청

17) *ibid.*, S. 596 f. (1792-1807).

했다. 벤티디우스에 대한 그녀의 복수는 호의와 사랑을 배신한 남자에 대한 여자의 복수에 불과하다. 작가는 이 작품의 정점을 투스넬다의 복수 장면에 맞추었으나 투스넬다의 역할을 남자 대 여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게 하고 있다. 그는 여성의 사명이나 사회적인 역할에 관해서는 매우 고루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클라이스트가 그의 약혼녀 빌헬미네(Wilhelmine von Zenge)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그의 여성관의 일면을 볼 수 있다.

남자란 한 여자의 남편일 뿐 아니라 국가의 공민(Bürger)이다. 그러나 여자란 오직 한 남자의 아내이다. 남자란 자기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 조국에 대한 책임이 있다. 반면에 여자란 자기 남편에 대한 책임 이외에는 어떤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다.<sup>18)</sup>

투스넬다는 복수가 끝났을 때에도 어떤 회열이나 성취감, 혹은 만족도 느끼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가 게르만 민족의 해방을 쟁취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벤티디우스가 도움을 절규했을 때 귀를 막았으며 그가 맹수의 공격을 받고 단말마의 비명을 질렀을 때 실신한다. 21장은 부상한 로마 총사령관 바루스의 독무대다. 그는 세계를 지배하는 대로마제국의 군대가 한 야만인의 책략으로 붕괴되는 것을 탄식하며 전 게르만 민족을 지배하는 것은 세 개의 주사위로 19의 숫자를 나오게 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임을 통감한다. 이제 이 드라마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다. 헤르만은 자기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즈베벤의 마르보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게르만족의 영도자로 추대하려 하자 마르보트는 이를 한사코 사양하며 오히려 헤르만이야말로 우리들의 영도자라고 소리친다. 헤르만은, 물론 교활한 술책이지만,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게르만 15부족의 왕으로 추대된다. 이제 그는 게르만족의 왕으로서 먼저 투스넬다의 공적을 찬양하고 끝까지 로마군과 손을 잡았던 아리스탄을 민족 반역자로 처단한다. 헤르만은 제후

---

18) H. v. Kleists Werke, hrsg. v. Erich Schmidt, Vol. I, S. 63. (Brief an Wilhelmine, den 30. Mai 1800)

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친다.

그대 토이트(Teut)의 아들들이여,  
이 떡갈나무 숲에서 우리의 승리를  
감사하라.  
지금부터 로마군을 추격하여 라인강 기슭으로 달려가  
한 명의 로마병사도  
여신 게르미니아의 신성한 국토를  
벗어나게 하지 말라.  
그렇게하면 언젠가는 우리들이  
로마로 쳐들어갈 날이 오고 말거야.  
우리들 자신이, 아니면 우리의 자손들이  
이 도적의 소굴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폐허 위에 조기를 세울 때까지는  
이 세계에 평화가 없기 때문이다.<sup>19)</sup>

### III

이상으로 『헤르만의 전쟁』의 줄거리를 검토해 보았다. 이 작품은 클라이스트가 드레스덴에 체류했던 1808년에 완성되었다. 그가 체류한 기간은 1807년 7월에서 1809년 4월까지다. 이 기간중에 그는 실로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 그는 소설 『미하엘 콜하스』(Michael Kohlhaas), 『O... 후작 부인』(Marquise von O...), 『하일브른의 켄헨』(Das Käthchen von Heilbronn) 및 예술론 『인형극에 관하여』(Über das Marionetten-theater) 등을 이 시기에 썼다. 그 밖에도 그는 뮐러(Adam Müller)와 공동출자로 문예지 『뢰부스』(Phöbus)를 창간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나폴레옹에 대한 클라이스트의 증오는 그의 오래된 감정이었으나 표면

---

19) H. v. Kleist: Sämt. Werke und Briefe 1, S. 628 (2624-2636).

화된 것은 1805년 12월의 아우스테르리츠에서의 패전과 예나(Jena)에서의 프로이센군의 패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806년 가을에 그의 누이에게 쓴 편지에 "황제(나폴레옹)는 프랑스인에게 모든 首都의 약탈을 허락한다고 약속한 모양이야. 만일 이 잔학한 인간이 국가를 세운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은 한 부분에 불과해. 우리들은 로마인에 억압받았던 민족이야. 프랑스를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유럽의 약탈이 계획되고 있어"<sup>20)</sup>라고 썼다. 그는 프로이센의 굴복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보복을 위한 수단이 부정부적이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특히 그를 격분하게 한 것은 일부 지식인들이, 나폴레옹은 악정을 일삼는 군소영주들을 쫓아내고 대신 근대 정신에 입각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독일지배는 오히려 독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사실 예나에 입성한 프랑스군은 주민에 대한 만행을 거의 저지르지 않았다. 물론 전쟁 초기에 예나와 바이마르(Weimar)에서 프랑스군 2개 연대에 의한 약탈이 있었지만 그들은 공개적으로 응분의 처벌을 받았다. 그 후 그들의 질서정연한 행동은 주민들의 칭송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독일 여인들의 호감을 샀다. 우리는 이 작품의 4막 9장에서 헤르만이 한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를 증오한다.  
 그의 행위가 한 순간  
 나를 독일국의 큰 일에  
 배신자가 되게 했다.

이 말은 로마의 총사령관 바루스의 의연하고 공정한 태도가 헤르만의 복수심에 찬 물을 끼얹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랑스군의 잔인한 만행을 기대했는지 모른다. 또한 투스넬다의 성격도 순박하고 선량한 독일의 여인상을 대표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외국 것에 대해서 자기를 비하하는 어리석은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

20) H. v. Kleists Werke, Vol. II, S. 154 ff. (Brief an Ulrike von Kleist, den 24. Okt. 1806)

클라이스트는 『헤르만의 전쟁』을 탈고한 후 이 작품의 무대공연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는 이 희곡을 통해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고 나폴레옹에 대한 증오심을 고취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클라이스트가 이 작품의 공연을 위하여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다음 몇 통의 편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수취인은 모두 콜린(Joseph von Collin)으로 되어 있으며 첫번째 편지의 날짜는 1809년 1월 1일이다.

동봉한, 『헤르만의 전쟁』이라 제명한 試作的 희곡을 보냅니다. 『켓헨 폰 하일브른』과 마찬가지로 귀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제극국장 감독에게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극장측에서 공연을 허락한다면 『켓헨』보다 이 작품을 먼저 상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만약 가능하다면.) 물론 이 작품이 『켓헨』보다 우수한 작품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공연의 성공은 확실합니다.<sup>21)</sup>

같은 해 2월 22일.

『헤르만의 전쟁』의 원고를 받았습니까. 만약 아직도 원고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급히 연락해 주십시오.<sup>22)</sup>

그리고 4월 20일.

『헤르만의 전쟁』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오직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이 작품의 상연을 내가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지요. 제발 공연이 결정되었노라고 알려 주십시오. 조건 따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작품을 전 독일인에게 바치겠습니다. 이 작품의 공연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sup>23)</sup>

---

21) *ibid.*, S. 215 (Brief an Joseph von Collin).

22) *ibid.*, S. 218.

23) *ibid.*, S. 222 f.

클라이스트의 이러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당시의 시국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을 갖고 있고 또 작품 자체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공연되지 못했다. 예나(Jena) 전쟁 후 진주군에 대한 주민의 반감이나 저항이 가라앉게 되자 프랑스 당국은 신문 및 공연물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였다. 특히 1809년 7월 초 사실상 독일제국의 마지막 저항이었던 바그람(Wagram) 패전은 클라이스트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시국과 관련된 작품에 대한 기피현상이 바그람 패전 때문만은 아니지만 『헤르만의 전쟁』은 공연은 고사하고 출판조차도 기억이 없었다. 물론 이 작품이 당시 드레스덴의 문학 애호가들의 사적인 모임에서 낭독되었지만 이 작품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게르만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다는 숭고한 목적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해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수모당한 딸의 가슴에 그 아버지가 칼을 꽂는 대목이라든지 게르만 민족의 단결을 위해 그 시신을 토막내는 장면을 환영할 관객은 없었다. 투스넬다의 잔인한 복수도 관객들의 갈채와는 거리가 멀었다. 뿐만 아니라 이 희곡의 구성에 있어 5막에 중점을 둔 나머지 24개의 장을 1개의 막(Akt)에 배정했기 때문에 막과 막사이의 균형을 잃었고, 많은 등장 인물의 등장과 퇴장이 반복되어 극의 긴장감이 감소한다. 쾨르너(Christan Gottfried Körner)는 자신의 아들 테오도르(Theodor Körner)에게 『헤르만의 전쟁』에 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클라이스트는 헤르만과 바루스(『헤르만의 전쟁』을 뜻함)를 썼다. 이 작품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낭독되었다. 그러나 곤란한 것은 이 작품이 현재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책으로 출간될 가망은 전무한 실정이다. 문학이 현실세계와 관련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번거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즐겨 공상의 세계로 도피하는 것이지.<sup>24)</sup>

쾨르너의 말은 당시의 문단의 세론을 대표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24) H. Sembdner (Hrsg.): H. v. Kleists Lebensspuren. Dokumente u. Berichte der Zeitgenossen, Bd. 1, Insel Verlag 1984 (이하 Lbss.로 약칭), S. 256, Nr. 304\*.

일부 평론가들은 그의 지나친 애국심이 그를 폭력적 배타적 국수주의자로 전락시켰다고 비난했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조국의 자유와 타민족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을 뿐, 결코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든지 유럽제패를 꿈꾸는 편협한 애국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훨씬 나중의 일이지만 다알만(F. G. Dahlmann)은 문학사가인 게르비누스(Georg Gottfried Gervinus)에게 『헤르만의 전쟁』에 관해 그의 소감을 이렇게 적었다.

만약 당신의 저서 마지막 권에 클라이스트에 관해 일별을 할애하신다면 부디 관대한 평가를 내리시기 미리 부탁드립니다. 물론 그의 최면술(Magnetismus)과 몽유병자적 행적 그리고 지나치게 잘게 저민 문체(zu sehr zerhackter Stil)를 변호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클라이스트가 천부적으로 위대한 그리고 진정한 극작가적 재능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국 독일을 향한 불타는 사랑에 관한 한 그를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평이 좋지 못한 『헤르만의 전쟁』을 나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동시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후안무치한 라인동맹의 정신(당신은 그것을 모르고 계시겠지만)을 이토록 정확하게 묘사한 문장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결국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족장(族長) 아르스탄이 누구인지, 그리고 잘난 채하며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조국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당시에는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 이 작품의 출판은 1809년 당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암곰이 벤티디우스를 소생시키는 것도 저항감을 느끼고 있음을 당신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클라이스트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나의 투스넬다는 훌륭한 여자이지만 단지 조금 단순하고 허영심이 강하지요. 프랑스인에게 끌리는 점에 있어서는 요즘 여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러한 성질의 여자가 일단 각성하면 무서운 복수를 필요로 합니다.<sup>25)</sup>

25) Lbss., S. 278, Nr. 319; Kleists Werke, Vol. 5, Die Hermannsschlacht. Einleitung, S. 9.

『헤르만의 전쟁』은 이와 같은 상반된 논의 속에서 그의 의도와는 달리 많은 오해를 야기했다. 이 작품도 그의 다른 여러 작품과 마찬가지로 그의 생전에 공연은 물론이고 출판조차 기약이 없었다. 이 작품은 티이크(Ludwig Tieck)가 1821년 베를린에서 처음으로 발행하였고 1860년 부레스라우에서 초연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켐브드너(Helmut Sembdner)는 그 시기를 1839년이라고 주장하였다.<sup>26)</sup>

## Benutzte Literatur

### I. Texte

H. v. Kleist: Sämtliche Werke und Briefe in 2 Bde., hrsg. v. H. Sembdner, Darmstadt 1970.

H. v. Kleists Werke. Im Verein mit Georg Minde-Pouet und Reinhold Seig, hrsg. v. Erich Schmidt, 8 Bde., Leipzig 1936-38.

### II. Sekundärliteratur

Blöcker, Günter: Heinrich von Kleist oder Das absolute Ich, Berlin 1960.

Fricke, Gerhard: Gefühl und Schicksal bei H. v. Kleist, Darmstadt 1963.

Gundolf, Friedrich: Heinrich von Kleist, Berlin 1924.

Hoverland, Lilian: H. v. Kleist und das Prinzip der Gestaltung, Scriptor 1978.

Koch, Friedrich: Heinrich von Kleist. Bewußtsein und Wirklichkeit, Stuttgart 1958.

Meyer-Benfy, Heinrich: Kleist Leben u. Werke, Göttingen 1911.

Mommsen, Katharina: Kleists Kampf mit Goethe, Heidelberg 1974.

---

26) Vgl. H. v. Kleist: Sämt. Werke u. Brief, Bd. 1, S. 942 (Anm.).

- Müller-Seidel, Walter: *Versehen und Erkennen. Eine Studie über H. v. Kleist*, Köln 1961.
- Schmidt, Jochen: *Heinrich von Kleist. Studien zu seiner poetischen Verfahrungsweise*, Tübingen 1974.
- Sembdner, H.(Hrsg.): *H. v. Kleists Lebensspuren. Dokumente u. Berichte der Zeitgenossen. Dokumente zu Kleist, Bd. 1*, Insel Verlag 1984.
- Sembdner, H.(Hrsg.): *H. v. Kleists Nachruhm*, Bremen 1967.
- Sembdner, Helmut: *In Sachen Kleist. Beiträge zur Forschung*, München 1973.
- Streller, Siegfried: *Das dramatische Werke H. v. Kleists*, Berlin 1966.
- Ugrinsky, Alexej (Hrsg.): *Heinrich von Kleist-Studien*, Berlin 1980.
- Witkop, Philipp: *Heinrich von Kleist*, Leipzig 1922.